대한건설협회충남도회신임회장

신 창 균 (주)삼익진흥건설 대표이사

"제값 받고 제대로 공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되어야"

"회원사인지역업체들이대부분어려운시기를보내고있어기쁨보다는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40년 가까이 건설업만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들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해야하는지차근차근모색해보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의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한 신창균 삼익진흥건설 대표는 앞으로3년간회원사의권익옹호와불합리한제도개선, 수주물량확대, 공사수익기반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문제해결에최선을다해나가겠다는다짐도피력했다.

그는 우선 건설업체들이 제값 받고 제대로공사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 적정 공사비확보가무엇보다 시급하다는지적이다." 모두다그렇지는않겠지만일부건설업체들이공사를수주하고도 손해를 걱정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최소한직접공사비는확보할수있도록 정부의 입찰제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창균 회장은 먼저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에대해역설했다." 최저가공사에대한경쟁이과열되면서적자시공문제는어제오늘의일이아닙니다. 이렇다보니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는예산문제로당장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할수없다면가격이외에' 유지관리', '시공 경험'등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평가기준으로업체를선정해야한다고제시했다. 가격보다는가치 중심의 낙찰제도로 방향을틀어야한다는것이다.

신창균 회장은 또한 최저가 공사의 보증을 현재의 공사이행보증에서 차액보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 금액의 85%와 낙찰 금액의 차이를 차액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보증하게 되면 저가 낙찰을 막을수있다는것이다. 다만차액보증제를다시부활시킬경우에는차액보증금을현금으로 전환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건설단체의 수장으로서 신창균회장은지역업체들의물량확보에도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지역 경제에 비중이 큰지역건설업체들이 해당지역에서발주되는공사에반드시참여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그는" 분할발주를확대해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적극 활용하고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지역업체들의참여를 제도적으로일정비율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액 공사는 광역시 · 도가 아닌 시 · 군 · 구업체로제한입찰하는방법을검토해야 한다고강조했다.

한편, 삼익진흥건설을충남의중견기업으로발전시켜온신창균회장은백제장학회 이사장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도 경제 성장기 우리나라 전반을 업그레이드시켰던 새마을 운동과는 아직 도인연을이어가고있다." 당시 10년동안 새마을지도자를하면서가슴뿌듯한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새마을 정신이 기업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요. 그래서 지금도당시 지도자들과정기적으로모임을 갖고있습니다."

선친의 가업을 이어받은 신창균 회장은 입사하자마자 현장으로내보내3년 동안현장 실무를 익히게 한 아들이 경영자 수업을 착실하게 거치고있어 3세경영이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요즘건설업이어려워지면서지방의경우가업을잇겠다는젊은이들이거의끊기고 있습니다. 다행히우리회사의수십년동안 쌓아 온 노하우와 명성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보여마음이놓입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